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요구를 반영한 농촌주거계획*

The Rural Housing Planning Reflecting the Needs of the Elderly People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uthor 이윤재 Lee, Youn-Jae / 정희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이학박사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rural housing planning guidelines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needs of the elderly people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nd looking into complaints about their houses targeting 120 people from 50s to 70s. The method employed was a survey with questionnaire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e needs of the elderly for the rural housing are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retired elderly people because they still engage in farming activities even if they grow old. The need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show high preference for the foyer storage to store equipments and goods related to agriculture. Second, the respondents have needs for enough kitchen area accommodating their house work and rural life. Lastly, the respondents highly prefer well planned storehouses in the exterior. In addition, they also want the storehouse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house because this plan can save their workforce. They recognize storehouses are the most poorly planned space in the rural house because of the unsatisfactory space area and interior space planning. These needs should be reflected on the planning of rural housing for the elderly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Keywords 농촌주거계획, 고령자 요구, 생산 활동, 현관 수납계획, 외부창고
Rural Housing Planning, Elderly People's Needs, Farming Activities, Foyer Storage Planning, Storehous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촌 및 어촌지역의 고령인구의 증가이며 이미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도시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1.3%보다 약 3배나 높다.¹⁾ 귀농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찾아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청장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사활동과 같은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고령자용 농촌 주택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고령

자가 거주하는 농촌주택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속연구로 농촌거주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지역에서 농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자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을 계획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상 읍, 면으로 분류되고 농업관련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50대, 60대, 70대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 각각 40명씩 총 120명을 편의 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0대 이후의 고령자는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4-A001-0033)

1) 장경호·이호중·박지은·홍영석,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0, pp.2-4

예비조사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충청도지역 30명, 경상도지역 60명, 전라도 지역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1일~8월 25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방식과 고령으로 인하여 자기기입방식이 불편한 경우에는 조사보조원이 읽어주고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와 1명의 연구보조원, 4명의 조사보조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의 고령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주거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고령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 단계를 준비하는 예비 고령자의 주거 요구 특성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 농촌 노인주거관련 선행연구 경향

관련 선행 연구 가운데에 배정인 외 1인의 연구²⁾는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촌 1인 및 부부가구의 재래 주택 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농촌의 고령자단독가구는 개방도, 완충공간에 대한 요구가 크고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단열육실 등 고령자주택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명규의 논문³⁾에서는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도시 및 농촌의 노인 단독가구의 주거환경계획에 필요한 제반 요소 중에서 주거조건, 주거만족수준, 불만족 이유, 거주이유, 주거선택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주의식에 관해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숙 외 4인의 연구⁴⁾는 농촌주거의 개선 방안으로 농촌 마을 단위에 적합한 노인공동주거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192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현재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조하고 마을 회관을 거점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 방향과 임대 노인공동주거 신축방안, 주택 공유 등 다양한 공동주거 유형을 제안하였다. 고인호 외 2인의 논문⁵⁾에서는 농촌의 취약계층으로 노인 1

인가구의 경우에 주택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주거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공간에 대한 적응과 애착으로 인해 주거만족도는 낮지 않았으며 개조에 대한 의사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주거환경의 문제점이 있으나 고령의 거주자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애착으로 인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진원 외 5인의 논문⁶⁾은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농촌 노인들이 편리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공간별 개조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덕래의 논문⁷⁾에서는 농촌지역의 노인주택에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30대에서 60대의, 도시 및 농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요구 조사 분석에 근거하여 농촌지역 노인주택 건축 계획 우선요소를 제시하였다. 노인주택 내부공간계획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며 내부 공간 중에서도 거실/주방계획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주택 관련 연구는 농촌주택의 노후화, 거주자의 고령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제안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대부분의 고령자 가구는 일반적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 활동으로 부터 은퇴를 하는 고령자 가구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농사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주택 및 주택 외부공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⁸⁾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대상은 50대, 60대, 70대 각각 40명씩으로 할당하였으며 이중에서 남성이 50.8%, 여성이 49.2%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유형은 독신가구가 15%, 자녀동거가구는 20.8%, 부부가구가 62.5%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자의 84.2%가 논농사, 밭농사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축산업, 과수업 등의 생산 활동에

6) 김진원·최장순·이승준·이관규·윤영환·서옥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응한 농촌지역 노인주거의 개조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2호, 통권29호, 2008.6, pp.17-26

7) 이덕래, 농촌지역 노인주택 건축계획 우선요소 조사연구, 한밭대 석사논문, 2013.2, pp.1-13

8) 노후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만들기(한국주거학회, 2007),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연구(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5)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 노인의 범위는 개인위생수행기능(self-care functioning)과 가사활동기능(domestic functioning)을 자립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능 항목에는 개인위생, 이동, 식사, 화장실사용하기, 가사(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사 등과 같은 생산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음.

2) 배정인·Kantano, Hiroshi, 재래농촌주택의 계승 및 개선의 측면에서 본 농촌 고령 1인·부부가구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2005.12, pp.73-82

3) 최명규, 도시-농촌 거주에 따른 한국노인의 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제3호, 2004.10, pp.113-122

4) 최병숙·오찬옥·홍찬선·박선희·박정란,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한국주거학회, 제17권, 3호, 2006.6, pp.143-155

5) 고인호·이동숙·윤충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3호, 2012.8, pp.1-8

중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범위에 대한 응답자의 89%는 200만 원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⁹⁾은 139.37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신가구의 경우 98.89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40.81만원으로 2011년 우리나라 노인 가구 월평균가계소득에서 노인부부가구는 185만원, 노인 1인 가구 76.1만원¹⁰⁾ 인 것과 비교하면 조사대상 1인 가구 소득은 우리나라 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노인부부가구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 특성

	항목	분류	빈도	퍼센트
일반적 특성	연령 (n=120)	50대	40	33.3
		60대	40	33.3
		70대	40	33.3
	성별 (n=120)	남성	61	50.8
		여성	59	49.2
	가구유형 (n=120)	독신	18	15
		부부	75	62.5
		자녀와 동거	25	20.8
	생산활동 종류 (n=120)	부모와 함께 거주	2	1.6
		농농사	36	30
		발농사	65	54.2
		축산	1	0.8
	월평균소득 ¹¹⁾ (n=118)	과수	13	10.8
특용작물		5	4.1	
0-100만원 미만		59	5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6	39	
주택 특성	주택규모 (n=120)	200만원 이상	13	11
		10평 이상-20평 미만	23	19.2
		20평 이상-30평 미만	76	63.3
		30평 이상-40평 미만	14	11.7
	침실개수 (n=120)	41평 이상	7	5.8
		1개	1	0.8
		2개	15	12.5
		3개	90	75
		4개	10	8.3
	화장실개수 (n=120)	5개	4	3.3
		1개	56	46.7
		2개	61	50.8
		3개 이상	3	2.5

현재 거주하는 주택특성을 요약하면 전체 응답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주택규모는 20평 이상~30평 미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평 이상-20평 미만의 주택에 19.2%가 거주하고 있다. 주택의 침실개수는 3개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실은 2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었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으나 1개 화장실 설치도 46.7%로 나타나 화장실이 2개 계획된 응답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9) 설문조사 시에 월평균 농가소득을 개방형(open-ended)질문으로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에 소득을 범주화 함

10)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11) 가구유형별 월평균소득

	분류	월평균소득(만원)
가구유형별 월평균소득	독신가구	98.89
	부부가구	140.81
	자녀와 동거가구	162.41
	전체 평균	139.37

3.2. 주택 공간별 계획에 관한 요구 사항

본 연구에서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 주택을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재적 거주자의 공간별 요구특성을 조사하였다. <표 2>는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에서 5점 척도(등간척도)를 이용한 문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이고 5점은 '매우 그렇다'이며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록하였다. 요구특성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가구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응답자들은 농촌 주택 계획에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질문에서 3.5점 이상 수준의 요구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관계획

<표 2>에서 현관면적확대에 대한 요구는 보통이상인 3.77 이지만 연령별로 50대는 4.10, 60대는 3.75, 70대 3.48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현관면적 확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될수록 특정행위(의자에 앉아서 신을 신고 벗는 행위, 핸드레일을 잡고서는 행위)에 필요한 동작면적이 증가하고¹²⁾ 필요한 시설(핸드레일, 의자)이 설치되어야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관 확대의 요구가 낮은 것으로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관 면적을 축소하기보다는 고령화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 설치와 동작면적의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면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관 신발장 규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가구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독신집단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신발장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구수가 증가할수록 요구수준이 높아졌다. 이것은 식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할당되는 신발장의 유효공간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사관련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현관이나 현관근처에 계획할 것에 대한 요구가 4.03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관련한 현장조사¹³⁾에서 다수의 가구에서 현관에 신발 외

12) 이윤재, 경제적 수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면적 산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8.8, pp.15-17

13)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2013, 2014년에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고령자 거주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이윤재, 농촌지역의 노인 주거 공용 공간 실태조사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논문집 12권 5호, 2013.10, pp.13-30
이윤재, 농촌 고령자주택 사례조사에 근거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분석,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권 5호, 2014.10, pp.122-130

에 야채를 담은 상자, 작은 농기구, 곡식을 담은 자루 등 다양한 물품을 두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현관 공간이 부족하고 현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현관 신발 수납공간 외의 수납공간에 대한 동일한 요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 거주자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관에 농사관련 도구 및 생산물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2> 고령자 주택 계획에 대한 요구 특성 1

공간	번호	요구 조사항목	평균	표준 편차	
현관	1	현관면적확대	3.77	1.041	
		F: 3.793 *p<0.05	연령	Duncan	
			50대	a	4.1
			60대	a	b
	70대		b	3.48	
	2	현관신발장 규모 확대	3.87	0.987	
		F: 7.326 **p<0.01	가구유형	Duncan	
			독신	a	3.11
	부부거주			b	3.95
	자식과 동거		b	4.15	
3	현관에 농사관련 도구 및 물품 저장소 계획	4.03	0.869		
4	명절에 자녀방문 수준	4.47	0.721		
5	안방 드레스 룸 계획 선호	4.15	0.657		
6	침대사용선호수준	3.6	1.080		
침실	7	안방 좌식접객용도 면적 필요	3.62	1.054	
		F: 2.899 *p<0.05	가구유형	Duncan	
			독신	a	4.17
			부부거주		b
	자식과 동거		b	3.56	
	8	안방용화장실/욕실계획	3.66	1.156	
	9	안방용 욕실에 샤워기 설치 선호	3.63	1.107	
		F: 6.023 **p<0.01	연령	Duncan	
			50대	a	3.98
	60대		a	3.75	
70대		b	3.18		
거실/부엌	10	거실 좌식접객용도 면적 필요	4.37	0.623	
	11	소파사용선호수준	3.97	0.819	
	12	이웃과 왕래 수준	4.01	0.961	
		F: 2.899 *p<0.05	독신	4.39	
			부부거주	3.89	
	자식과 동거		4.04		
13	LDK유형선호	3.95	0.897		
14	가사직업수용 가능한 넓은 부엌면적 선호	4.15	0.657		
15	식탁사용선호수준	3.97	0.874		
욕실	16	욕실 욕조 불필요	3.54	1.166	
	17	별도의 세탁 공간 선호	3.83	0.882	
수납공간	18	주택내부에 수납공간 분배치 선호	3.83	0.892	
	19	주택(본체)과 직접 연결되는 외부창고계획 선호	4.13	0.744	
외부공간	20	뒷마루 계획 선호	3.24	1.092	
만족도	21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도	3.19	0.981	

(2) 침실 계획

<표 3>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현재 침실 3개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침실의 개수는 3개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 주택의 침실 수와 비교하면, 3개 침실을 선호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1개, 2개 및 4개에 대한 선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침실 수에 대한 선호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집단별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100만원 미만에서는 2~3개, 100~200만원 집단은 3개 침실, 200만 원 이상 집단은 3, 4개의 침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침실 수도 증가하기를 원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침실 수는 주택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택크기가 증가할 것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소득수준에 따른 현재 침실 수 및 선호 침실 수

		소득수준			전체 (%)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만원이상	
현재 침실 수	1개	1 (1.7)	0 (0)	0 (0)	1(0.8)
	2개	11(18.6)	4 (8.7)	0 (0)	15(12.5)
	3개	41(69.5)	36 (78.3)	12 (92.3)	90(75)
	4개	6 (10.2)	3 (6.5)	1 (7.7)	10(8.3)
	5개	0 (0)	3 (6.5)	0 (0)	4(3.3)
선호 침실 수	1개	2(3.4)	1 (2.2)	2 (15.4)	5(4.2)
	2개	17 (28.8)	4 (8.7)	0(0.0)	21(17.8)
	3개	37 (62.7)	35 (76.1)	7(53.8)	79(66.9)
	4개	3 (5.1)	6 (13)	4(30.8)	13(11)
	전체	59 (100)	46 (100)	13(100)	118(100)

<표 4>에서 현재 안방을 제외한 침실의 용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자녀 및 손님 방문에 대비한 침실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95.8%로 가장 많았고(다중응답) 이러한 결과는 <표 2>의 4번 문항에서 명절에 자식들이 방문하는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4.47/5로 나타난 것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농촌 고령자 주거는 자녀의 방문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비하는 침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현재 고령자 주택의 침실 용도에 근거하면 안방을 제외하고 적어도 1개 이상의 여유 침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침실의 용도는 실내창고(옷방, 드레스 룸 포함) 용도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5%로 많았다. 침실을 실내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과 함께 <표 2>에서 안방 드레스 룸 계획에 대한 요구가 4.1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촌 고령자 거주 주택 관련 현장조사에서 이미 고령거주자들이 안방을 제외한 침실중의 하나를 드레스 룸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황은 고령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침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현장조사에 따르면 침실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다른 물품을 계속적으로 들어서 옮기는 행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관절관련 질병을 많이 앓게 되는 고령의 거주자¹⁴⁾에게 힘든 작업이므로 과중한 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된 드레스 룸이나 실내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4) 정옥분·김동배·정순화·손화희,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8, pp.69-75

<표 4> 안방을 제외한 침실의 용도

	세부항목	빈도	퍼센트
침실 용도 (다중응답)	자녀 및 손님 방문 대비용	115	95.8
	부부별도침실용	8	6.7
	실내창고용(옷방, 드레스 룸 포함)	30	25
	부모님 침실	2	1.4

<표 2>의 7번에서는 안방에서 좌식의 형태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필요한 좌식접객용도 면적에 대한 요구는 평균 3.6 정도로 보통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구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부부 및 자녀동거가구와 달리 안방에서 바닥에 앉아서 접객행위를 할 수 있는 좌식 공간에 대한 요구수준이 4.17로 높았다. 이는 독신가구의 경우 안방이 취침기능 외에 일반적으로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접객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독신의 경우 안방은 취침과 접객의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침거실형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유형의 평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것은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의 8, 9번에서 안방용 욕실 계획 대해서 평균 3.66 정도의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안방용 욕실에 욕조보다 샤워시설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3.63의 선호도가 나타났다. 샤워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로 50대는 3.98, 60대는 3.75, 70대 3.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욕조에서 쉬고 싶어 하거나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샤워위주의 행태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거실/부엌 계획

<표 2>의 거실계획에 관해서는 좌식의 접객공간을 요구하는 수준이 4.37/5로 높게 나타났다. 입식생활양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실사용행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소파사용 선호수준이 3.97로 소파사용을 선호하지만 좌식접객 공간에 대한 요구는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현장조사에서 고령자들은 거실에 소파가 있었으나 바닥에 앉아서 접객하는 행태를 보였고 특히 여성인 경우와 겨울철(12월) 현장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파 배치 공간 외에 바닥에 앉아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추가 공간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으므로 농촌 고령자주택의 거실면적은 소파 배치 면적과 좌식 접객면적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이웃과의 왕래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4.01/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주택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평균(4.01)에 비해 독신

가구의 이웃과의 왕래수준이 4.39/5로 타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농촌 고령자 주택계획에서 독신가구의 경우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웃과의 왕래수준에 대한 결과에 근거하여 안방계획 또는 거실계획에서 충분한 접객공간이 포함되는 면적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간구성면에서 부엌계획은 LDK형을 선호하는 수준이 3.95정도이다. 이것은 농촌의 고령자 주택 부엌에서는 도시의 아파트 평면과 같이 거실, 부엌, 식사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계획을 비교적 선호하며 주택내부에서 전통적으로 부엌공간이 분리될 것을 선호하는 요구들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공간에 대한 접근성 및 고령자의 행위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 측면에서도 LDK형의 평면 계획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필요할 것이다.

부엌면적은 가사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에 대해 4.15/5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은퇴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가사 작업공간인 부엌을 축소하는 것과는 상이한 요구이다. 농촌에서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이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음식준비, 김장, 장 담그기 등의 작업을 직접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재배한 채소 다듬기, 곡류에서 이물질 고르기 등 농산물 관련 작업 등도 자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주택내부에서 다양한 가사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부엌에 대해서 은퇴한 일반 고령자와는 달리 충분한 면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⁵⁾

(4) 화장실 및 욕실 계획

<표 5>의 집단에 따라 화장실 개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수는 독신가구인 경우 1개 화장실 계획 비율이,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2개 화장실 계획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 2개 화장실 계획 비율이 부부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유형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주택내부에 요구하는 화장실 개수는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2개의 화장실 계획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에서도 2개를 요구하는 비율이 현재보다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수와 요구하는 화장실 수는 차이가 있다. 독신가구일지라도 이웃 등 외부인의 드나들이 많아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선호 화장실 개수는 연령 및 소득수준, 가구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소

15) 선행연구의 현장조사(이윤재, op. cit., 2014.10, pp.122-130)에서 관찰된 내용임.

득수준, 모든 연령대에서 화장실 2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추후 고령자용 농촌주택의 화장실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의 화장실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표 2> 16번 문항의 욕실계획에서 욕조 계획이 불필요하다는(샤워 부스 설치) 응답은 3.54로 보통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항목의 선호경향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실과 욕실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세탁실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욕실계획은 사고 발생 방지를 전제로 하여 별도의 세탁실을 계획하고 욕조계획 및 샤워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획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표 5> 현재 화장실 개수 및 선호 화장실 개수 [빈도(%)]

	개수	가구유형			합계
		독신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현재 화장실 개수	1개	12 (66.7)	34 (45.3)	10(37)	56 (46.7)
$\chi^2=20.378$ **p<0.01	2개	4 (22.2)	41 (54.7)	16 (59.3)	61(50.8)
	3개	2 (11.1)	0 (0)	1 (3.7)	3 (2.5)
	1개	4 (22.2)	23 (30.7)	3 (11.1)	30 (25)
선호 화장실 개수	2개	14 (77.8)	52 (69.3)	23 (85.2)	89 (74.2)
	3개	0 (0)	0(0)	1 (3.7)	1(0.8)
	합계	18 (100)	75(100)	27 (100)	120 (100)

(5) 수납 및 외부공간계획

<표 2>의 18번 문항에서 주택내부에 수납공간을 각 공간별로 분리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문항은 3.83/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조사에서 여분의 침실을 창고용으로 사용하면서 주택 내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을 수납하고 있어 매번 사용할 때마다 각 공간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동선이 길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택 내부에 한 개의 큰 공간으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부엌, 거실, 안방 등 관련 공간에 각각의 수납공간이 제공되어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동선을 줄여주며 사용하고자하는 물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준다.

외부창고계획에 대한 요구로서 주택(본채)과 직접 연결되는 외부창고계획에 대한 선호수준이 4.13/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농촌주택에서 본채와 분리되는 외부창고 계획방식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창고 현장조사16)에서 1개의 사례에서만 주택과 직접 연결되는 외부창고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사례에는 주택과 별도의 건물로 계획되어있었다. 그리고 <표 6>에 따르면 외부창고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선호하는 창고의 수는 2개가 가장 많았으며 외부창고 현장조사에서도 창고의

수는 1~2개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1개의 창고가 벽으로 구획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개 이상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비가 오거나 무거운 물건을 주택 본채로 옮길 때 힘들기 때문에 창고와 주택이 바로 연결되거나 인접하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있으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납하기 위해 창고가 여러 개의 칸으로 구획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고령자용 평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부창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 관찰, 분석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창고 계획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고령자 주택 계획에 대한 요구 특성 2

요구항목	세부 항목			빈도	%
선호 외부창고 개수	2개	69			57.5
	1개	44			36.7
	3개	7			5.8
작업 후 세수공간 위치	외부공간	73			60.8
	집 내부 욕실	46			38.3
	기타	1			0.8
외부 세수공간 계획 (마당 수도)	현관에 인접한 곳	43			35.8
	뒷마당 수도가 (부엌뒷문과 인접한곳)	18			15
	앞마당 구석	46			38.3
	상관없음	13			10.8
농사관련 작업장소 $\chi^2=36.252$ ***p<0.001	소득 수준	100만원	100~200만원	200만원이상	
	마당	33(55.9)	26(56.5)	5(38.5)	63 52.5
	창고	4(6.8)	8(17.4)	6(46.2)	19 15.8
	거실	3(5.1)	4(8.7)	1(7.7)	8 6.7
	비닐하우스	0(0.0)	3(6.5)	0(0.0)	3 2.5
	작업장	0(0.0)	0(0.0)	1(7.7)	1 0.8
	밖/들	5(8.5)	3(6.5)	0(0.0)	8 6.7
	없다	14(23.7)	2(4.3)	0(0.0)	17 14.2
	합계	59(100)	46(100)	13(100)	118 100
	현재 주택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	거실	19		
안방		6			5
부엌		19			15.8
현관		14			11.7
외부창고		24			20
마당		4			3.3
화장실		3			2.5
계단		1			0.8
없음		30			25
합계		120			100

<표 6>에 따르면 작업 후 세수 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60.8%는 외부공간을 선호하고 나머지는 내부욕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부에 세수공간을 계획한다면 현관과 인접한 곳이나 앞마당 구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다수의 농촌주택에서 앞마당에 수도공간을 설치하고 있는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전면에 수도공간이 계획되는 것이 적절하며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고 단차가 크지 않도록 계획해야한다.

<표 6>에서 농사 관련한 작업장소로는 마당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의 집에서는 마당을 가장 많이 선호하지만 200만 원 이상 소득 집

16) 2014년 7월 충남, 천원군의 농촌 고령자 거주 주택 12개 사례를 대상으로 부속사(창고, 헛간 등)를 현장 조사함.

단에서는 창고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장소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부 공간으로서의 창고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작업장소로 활용하고자하는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 고령자주택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마당 공간이 필요하며 창고도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내부계획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6) 주택 전반

<표 2>에서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3.19/5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의 고령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만족수준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요구사항 조사에서도 많은 항목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요구수준이 나타났으며 거주자들의 거주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고려한다면 고령자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집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에 대한 질문에 외부 창고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실과 부엌, 현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생산 활동과 외부창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고령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일반 고령자와는 달리 외부창고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부적절한 외부창고 계획은 고령자들에게 사용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외부창고 계획은 이들 주택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7) 주택 각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 요약

고령자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공간의 불편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120명중 95명이 114개의 불편사항을 말해주었고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이 중에서 창고면적이 협소하다는 것과 수납을 위한 내부구성이 비효율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해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외부창고를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실과 부엌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의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도 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것은 은퇴한 일반적인 노인 가구에서는 가족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각 공간의 크기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다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7> 공간별 불편 사항 요약

공간	불편유형	불편 유형의 세부 내용	개별 빈도	빈도 (%)	
거실	면적	거실이 비좁다	13	28 (19.44)	
		거실이 손님 방문 시 불편하다	2		
		자식들과 같이 사용해서 복잡하다	1		
		거실이 없다	2		
	설비 구조	거실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다	1		
		거실에 퇴비나 거름냄새가 들어온다.	1		
		거실이 외풍이 심해 겨울에 춥다	2		
낮은 계획 수준	거실 입구가 실용적이지 않다	1	6		
	옛날 집(한옥)이어서 거실이 불편하다	5			
부엌	면적	부엌이 좁다	16	17 (15.28)	
		부엌이 명절 때 협소하다	1		
	작업대	부엌 싱크대가 너무 낮다, 허리 아프다	2		
		수납	부엌이 정리정돈하기 힘들다		1
	부엌이 수납이 복잡하다		1		
낮은 계획 수준	옛날 주택을 개조하여 사용이 불편하다	1			
안방	면적	안방이 비좁다, 침대 외엔 공간이 없다	4	8 (5.56)	
		안방이 손님 방문 시 좁아서 불편하다	1		
	인테리어	안방 디자인이 촌스럽다	1		
		낮은 계획 수준	옛날 주택을 개조해서 안방이 불편하다		2
현관	면적	현관이 좁다	8	18 (12.69)	
		수납	현관에 신발장이 없거나 부족하다		3
	낮은 계획 수준		현관에 중문이 없다		1
		거실에서 현관 신발이 보여서 좋지 않다	1		
		현관 입구가 높아서 허리가 아프다	1		
	현관 계단	현관 앞 계단이 좁다	1		4
물건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3			
외부 창고	면적	외부창고가 없어서 불편하다	2	14 (21.53)	
		외부창고가 작다	12		
	내부 구성	외부창고에 수납공간이 없다	5		
		외부창고에 농기계가 무질서하게 있다	1		
		외부창고에서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2		
		농산용품 보관하기 불편하다	2		
		외부창고가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는다.	2		
	농작물이 보이도록 수납이 어렵다	1			
	관리·보수	외부창고가 물이 샌다.	1		2
		외부창고에 곰팡이가 빨리 생긴다.	1		
위치	외부창고가 본체에서 너무 멀다	2			
마당	면적	마당이 좁다	2	4 (2.78)	
		계획	비울 때 마당에서 일 할 수 없다		1
	바닥면	마당이 흩이어서 먼지가 많다	1		
화장실	외부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불편하다	3	(2.63)	
		합계	114		100 %

다수의 농촌 고령자들이 의식주생활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활해나가며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농촌 고령자들은 여전히 특정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생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부창고는 농촌 거주 고령자주택에서 고령자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와 효율적인 내부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용 농촌주택 디자인 지침 요약

지금까지의 요구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고령자용 주택을 위한 디자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고령자가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농촌의 고령자용 주택은 노인가구 주택개조매

뉴얼17)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하지만 농사와 같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디자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관은 고령자의 농사관련 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계획한다.
- 현관 또는 현관근처에 농사관련 도구 및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계획하도록 한다.
- 자녀 및 손님방문을 고려한 침실 수 계획이 필요하다.
- 안방에는 의류 및 침구류 등의 수납이 편리하도록 계획된 드레스 룸을 설치하도록 한다.
- 주택 내부의 수납공간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납할 수 있어야하며 각 물품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내부 각 공간에 수납장소를 분리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침거실형 평면(bed-sitting plan)에서 소파면적과 함께 좌식 접객 공간 면적도 고려되어야한다.
- 거실 계획 시에 소파면적과 함께 좌식 접객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 부엌은 가사작업(식사준비, 김장, 장 담그기) 및 농산물 정리 작업(채소다듬기, 곡류에서 이물질 골라내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면적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고령자 독신가구 및 고령자를 포함하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는 주택 내부에 최소한 2개의 화장실을 계획하도록 한다.
- 외부창고는 본채(살림채)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해야 한다.
- 충분한 면적의 외부창고가 제공되어야 한다.
-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각 공간이 분리된 외부창고가 계획되어야 한다.
- 외부창고의 내부 공간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작업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창고 계획을 고려하도록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계획을 위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50, 60, 70대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 120명을 대상으로 농촌 고령자 주택 계획에 관한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농촌의 고령자들이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이 은퇴를 전제로 하는 일반 고령자들과는 다른 부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추후 고령자용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 및 고령자용 농촌 주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 거주 고령자의 요구 및 불편 사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관 및 현관 신발장의 규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특히 도시 주택의 현관계획과 달리 현관 및 현관근처에 농사관련도구 및 물품 저장 공간을 설치할 것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이것은 주택을 드나들면서 농사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령의 거주자가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자녀 방문에 대비한 침실 수 계획과 드레스 룸과 같은 수납공간 계획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하는 고령자 수만을 대상으로 침실계획을 하기 보다는 방문자에 대한 높은 기대와 빈도를 고려하여 자녀 및 손님에 대비하는 침실계획이 필요하며 노화된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고 수납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공간 구성 및 수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드레스 룸 계획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독신 가구의 경우에 안방에 침대 공간 외에 좌식 접객공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았으며 독신 고령자는 이웃과의 왕래 수준을 고려하여 안방의 면적이 취침기능과 접객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거실 및 부엌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은 거실 계획 시에 소파면적 외에 좌식의 접객 공간을 추가로 요구하며 부엌은 가사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았다. 거실의 좌식 접객 공간 확보는 활발한 이웃과의 왕래를 위해서 침실의 접객 공간 확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엌의 충분한 가사작업 공간 확보는 기존의 고령자 주택 계획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농촌의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 및 가사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원활히 지원하기위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농촌 거주 고령자의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외부창고 계획에 관한 것이다. 현재 주택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을 외부창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편사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외부창고면적 협소 및 비효율적인 창고 내부 구성이며 주택 본채와 연결되는 외부 창고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등 외부 창고계획에 대한 요구수준 및 불편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농촌의 고령자는 도시의 고령자보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부창고에 대한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부분의 고령자주택관련 계획 지침은 은퇴를 가정한 일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촌의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가

17) 한국주거학회, 노후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만들기, 건설교통부, 2007.8, pp.1-47

생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안전하며 노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는 농촌형 고령자 주거를 계획하거나 고령자용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특징으로 대면 설문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수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에 더 많은 농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 활동과 밀접한 외부창고의 세부계획을 위한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정옥분·김동배·정순화·손화희·노인복지론, 학지사, 서울, 2008
2.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연구, 연구보고서, 2005.9
3. 한국주거학회, 노후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만들기, 건설교통부, 2007.8
4. 고인호·이동숙·윤충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3호, 2012.8
5. 김진원·최장순·이승준·이관규·윤영환·서옥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응한 농촌지역 노인주거의 개조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2호, 통권29호, 2008.6
6. 배정인·Kantano, Hiroshi, 재래농촌주택의 계승 및 개선의 측면에서 본 농촌 고령 1인·부부가구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2005.12
7. 이덕래, 농촌지역 노인주택 건축계획 우선요소 조사연구, 한밭대 석사논문, 2013.2
8. 이윤재, 경제적 수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면적 산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8.8
9. 이윤재, 농촌지역의 노인 주거 공용 공간 실태조사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논문집 12권 5호, 2013.10
10. 이윤재, 농촌 고령자주택 사례조사에 근거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분석,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권 5호, 2014.10
11. 장경호·이호중·박지은·홍영석,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0
12. 최명규, 도시-농촌 거주에 따른 한국노인의 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제3호, 2004.10
13. 최병숙·오찬욱·홍찬선·박선희·박정란,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한국주거학회, 제17권, 3호, 2006.6
14.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논문접수 : 2015. 08. 26]

[1차 심사 : 2015. 09. 04]

[게재확정 : 2015. 09. 15]